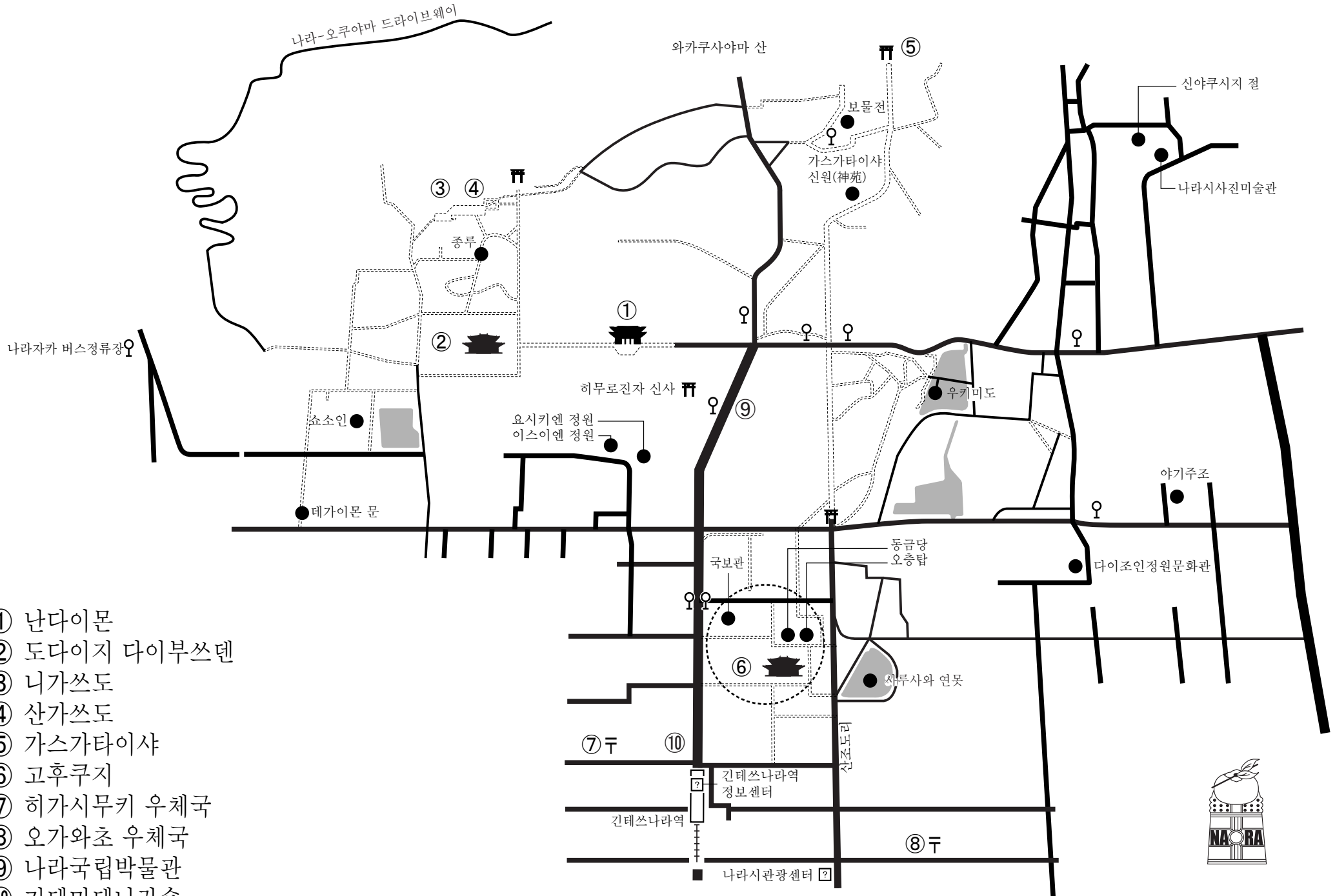


나라공원과 그 주변지역



- ① 난다이몬
- ② 도다이지 다이부쓰덴
- ③ 니가쓰도
- ④ 산가쓰도
- ⑤ 가스가타이사
- ⑥ 고후쿠지
- ⑦ 히가시무키 우체국
- ⑧ 오가와초 우체국
- ⑨ 나라국립박물관
- ⑩ 기데미테나라습



나라공원(奈良公園)과 그 주변지역 (약 3 시간)

【교통편】 JR 나라역(奈良駅) 또는 긴테쓰나라역(近鉄奈良駅)에서 버스를 타고 다이부쓰덴가스가타이샤마에(大仏殿春日大社前)정류장에서 하차.
약 10분 간격으로 운행.

《나라공원과 사슴》 넓이 660ha의 풍부한 녹지를 자랑하는 나라공원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사슴 1200여마리가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다.

[I]도다이지(東大寺) 절 : ①난다이몬(南大門) - 현재 남아있는 문은 12세기말 재건된 것이며, 좌우에 안치된 일본최대의 금강역사상은 13세기 초 불과 69일만에 만들어졌다. ⇒ ②다이부쓰덴(大仏殿) [500엔] - 8세기 쇼무천황이 세운 세계 최대의 목조건축물. 지붕의 치미는 화재를 막아준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. 내부에는 높이 15m의 본존인 비로자나불이 온화한 표정으로 연꽃대좌에 앉아 있다. 본존불 우측의 다문 천상 옆에는 구멍이 나 있는 기둥이 있는데 이 구멍을 빠져나가면 뭔가 좋은 일이 생긴다고 한다. ⇒ 빈두루존자상 - 본전 출구 바로 옆에 있다. 가볍게 쓰다듬으면 아픔을 없애주는 신비한 힘이 있다고 한다.

[II]도다이지 : ③니가쓰도(二月堂) [무료] - 다이부쓰덴 뒷편에 나 있는 조용한 돌길을 따라가면 니가쓰도와 종루로 이어진다. 종루는 13세기초에 만들어진 것이며 범종은 『나라타로(奈良太郎)』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친숙하다. 날씨가 좋으면 니가쓰도에서 나라시내를 한 눈에 볼 수 있다. ⇒ ④산가쓰도(三月堂) [500엔] - 니가쓰도에서 걸어서 2분. 불상에 흥미가 있으면 산가쓰도 내에 있는 국보 불공견삭관음상(不空羂索觀音像)을 꼭 보기 바란다. 이 외에도 일광보살상(日光菩薩像), 월광보살상(月光菩薩像) 등 많은 국보가 있다.

[III]⑤가스가타이샤(春日大社) 신사 : [무료. 단, 특별배관 500엔] 산가쓰도에서 걸어서 약 15분. 8세기에서 12세기까지 절대권력을 쥐고 있던 귀족가문인 후지와라가에서 세웠다. 1000여개의 매달린 등과, 2000여개의 석등이 줄지어 있다. 링고노니와(りんごの庭 - 사과정원) 왼편에는 수령 800년을 자랑하는 거대한 삼나무가 건물 지붕을 뚫고 뻗어있다. 뿐만 아니라 수령 600년을 자랑하는 등나무도 매년 봄이 되면 지면까지 늘어지는 멋진 꽃을 피운다. 보물전 [420엔] - 가스가타이샤에 전해 내려오는 보물에 흥미가 있는 분께 추천.

[IV]⑥고후쿠지(興福寺) 절 : 가스가타이샤에서 걸어서 약 20분. 8세기 후지와라가에서 창건하였다. 현재 남아있는 건물 중 동금당, 오층탑은 천황가의 발원으로 세워진 것이다. 오층탑(五重塔) [무료] - 1426년에 재건되었으며, 나라공원의 상징이자 일본에서 두번째로 높은(51m) 오층탑이다. ⇒ 동금당(東金堂) [300엔] - 1415년에 재건되었으며, 약사삼존상(藥師三尊像)이 안치되어 있다. ⇒ 국보관(国宝館) [500엔] 불상에 흥미가 있으면 꼭 한번 둘러보자.

※ 1km - 걸어서 15분 정도